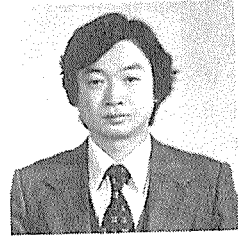


## 스피커 産業의 장래



李 大 照

三美企業(株)技術理事

音響機器의 콤포넌트 중에서 스피커産業이 차지하는 비중은 큰 것이며 그만큼 다각도의 技術開發과 투자가 先行되어야 한다.

스피커産業은 技術集約의 성격과 勞動集約의 성격을 동시에 내포하는 중요한 産業의 하나이며,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개발도상국은 歐美 先進國의 採算性 低下의 형편과 대조되는 成長産業으로서의 하나다. 국제수출 경쟁력을 강화함에 있어서도 적합한 品目이며 勞動集約의 성격 때문에 고용효과 증대에도 큰 유망産業임에 틀림 없다.

當社가 日本의 「WESTON 음향」과 기술제휴로 스피커를 生産하기 시작한 1961년부터 국내 스피커 産業이 본격화 되었다고 보는 데, 그후 20년이 지난 국내 스피커産業의 성장을 볼 때 우리나라 電子工業에 기여한 바 크다고 생각한다. 1967年 스피커의 첫 수출을 계기로 국산TV, Radio 제품의 輸出에 뒷받침한 것도 그 공헌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국내 스피커産業은 노동집약적 조립공정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실정 또한 현실임을 잘 안다. 여기에는 고급기술의 개발과 미래에 대응하는 연구시설의 미흡에 이유가 있는데 국내 스피커 업체의 장기적인 안목의 投資가 미비했음이 또한 스피커産業의 발전을 주춤거리게 한 요인이기도 하다.

국내 스피커産業이 발전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해결해야 할 問題點이 있다.

미래의 스피커産業은 갈수록 高度化 추세로 변해가고 있다.

따라서 이에 맞추어 국내 스피커産業을 育成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과 그에 따른 연구시설의 확보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국내 메이커의 형편은 그렇지 못하다.

기술집약적 産業으로 변모하기 위해서는 판로 개척과 부품에 대한 개발, 고급 원자재의 국산화 등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아직 거기에 못미치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스피커는 용도에 따라 여러가지로 분류(表1 참조)할 수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작하여 각 메이커에 공급하고 수출되는 主種들은 일반용스피커 고급스피커는 극히 적은 에 불과하다.

확성장치용, 통신기용, 악기용 등은 그 수요가 적고 특별히 주문되는 개발상품이기 때문에 항상 생산되는 제품이 아니다.

그러나 자동차용 스피커는 가격면에서 값이 싼 제품부터 아주 高價의 제품까지 다양하며, 물량면에서도 상당히 많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반면 그 利潤幅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왜냐하면 가격형성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 자체의 가격구조의 제도가 잘 되어있지 않다는 얘기과 같은 것이다.

이 문제는 앞으로 많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 (스피커의 分類)

1. 一般의인 분류

- 직접복사型
  - 다이나믹 型
  - 마그네틱 型
  - 컨덴서 型
  - 압전(세라믹, 크리스탈 型)

간접복사型 - 혼 型

2. 振動板의 모양에 따른 分類

- 콘 型 : 다이나믹 型
- 돔 型 : 다이나믹 型
- 평면 型 : 컨덴서 型    평판 型
- 리본 型 : 리본스피커

3. 用途에 의한 分類

일반용 : 라디오, T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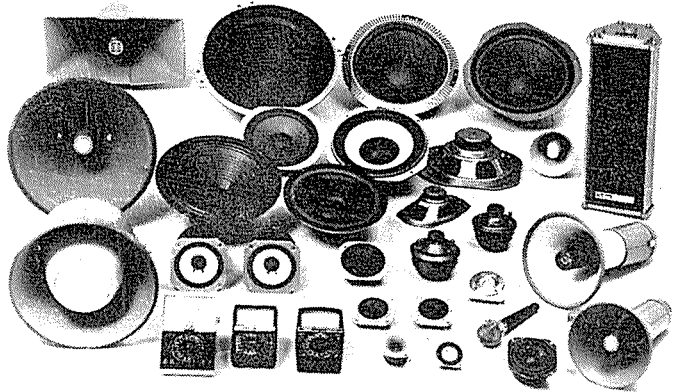
TAPE RECORDER

Hi-Fi 용

- 전대역 型 : 단일콘 型, 2중콘 型, 동축 型
- 대역지정 型 : 고음전용, 중음전용, 저음전용
- 자동차용 : CAR RADIO, CAR STEREO
- 확성장치용 : 옥내용, 옥외용, 수중용
- 통신기용 : 트랜시버
- 악기용 : 전자악기용 뮤지컬용

「사람의 귀는 G. N. P가 성장함에 따라 점점 고급화 된다」고 하였다. 최근의 音響機器 製品生産이 활발해지는 이유도 경제와 그만큼 관계가 있다. 따라서 음향기기 콤포넌트에서 필수적인 부품인 스피커의 고급화는 필연적이며 수요 또한 점점 확대될 전망이다.

최근 스피커産業은 국제 경쟁력이 있어서도 치열함을 보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와 경쟁 대상이 되고 있는 나라는 대만이며 품질이나 가격면에서 아직까지 값이 싼 제품들로 상대하고 있으나 하루속히 대만을 앞질러야 할 것이며, 머지 않아 대만을 따돌리는 기술우위로 스피커生産國이



될 것이라 전망한다. 이에 비해 日本은 스피커의 高級化를 일찌기 시도하여 국제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는 日本을 따라 잡기 위해서 기술 개발을 서둘러야 하며, 이미 당사를 위시한 스피커 메이커들은 이에 비상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스피커의 高級化는 먼저 고급 Hi-Fi를 생산하기 위해 신제품 개발과 양산화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원가절감(생산성 향상, 불량감소 등)을 하며 품질 관리를 통해서 품질 향상은 물론 새로운 설비의 도입 등으로 省力化와 자동화에 주력하지 않으면 안될 時點에 와 있다고 본다. 아울러 여기에는 여러가지의 難題들이 있겠으나 미래를 내다 볼때 스피커 生産業體 뿐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電子工業 育成과 함께 部品 生産業體에 큰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왔다고 본다.

스피커 부품의 재료구성은 금속, 섬유, 화학제품 등 다양하기 때문에 전문화가 되어야 하는데, 고급스피커를 개발 생산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사용되는 금속, 섬유, 화학제품의 질이 더욱 고급

와 균일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은 스피커生産에 따른 필연적인 요구이기도 하다. 이렇게 되었을때 스피커生産을 完全 국산화로 성능을 향상시키고 고급화 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특수 부분의 고급스피커生産은 외국에서 부품 또는 재료를 수입하여 가공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 가운데 진동계에 사용되는 Cone紙는 海外 유명 메이커들이 전력을 다하여 개발에 힘쓰고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스피커 메이커들은 自産 나름의 밝고 깨끗한音を 추구하기 때문에 이 「Cone紙」의 새로운 기술 개발에 힘쓰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자체내에 Cone紙를 생산하는 製造施設이 있는 회사도 더러 있으나 Hi-Fi Cone紙를 생산하는 시설로는 부적합할 뿐 더러 생산을 한다 하더라도 均一한 제품을 양산하는 데는 여러가지 문제가 많다. 그러나 일부 메이커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애쓰고 있으며 이 결과 대량생산은 되지 않으나 良質

〈스피커部品の 材料〉

	部 品 名	材 料
자 기 회 로	요 크 볼	구조용탄소강, 순철, 고무자용재료
	마 그 네 트	알니코계, 휘라이트계
	폴 가 이 드	황동판, 알루미늄
	보 조 재 료	에폭시계, 아크릴계 접착제
진 동 계	콘 지 (Cone紙)	펄프, 화이버, 삼아, 아마, 마닐라마, 전양모, 카본섬유, 기타.
	후 리 엣 지 센 터 캡	천 부직포, 우레탄폼, 고무, 비닐, 레온등
	콘지 이외의진 동판	천, 종이, 천, 수지, 금속판(알루미늄, 듀라류민)
	멤 퍼 보 이 스 코 일	천에 채널수지를 합친 것, 발포스티를 판금속판(알루미늄, 듀라류민, 티탄, 베리함) 천에 채널수지를 합친 건조한 것.
본 체	램 보 조 재 료	동선, 알루미늄 접착제, 땀납
	후 가 스 켈	강재,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제품 종이, 고무, 우레탄

의 Cone紙를 생산해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 소비자들이 國産部품을 사용했다고 하면 인정을 하지 않는 나쁜 풍토에도 문제가 있다. 이런 실정이니, 국내 스피커 메이커의 일부에서는 외제 Cone 紙를 輸入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외제 Cone紙를 대량 수입을 하게

되면 그만큼 외화 낭비와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이 없을 수 없다.

외화낭비는 물론이고 국내Cone紙 生産의 낙후가 우려되고 아울러 다른 部品生産에도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다. 따라서 Hi-Fi Cone紙의 國産化는 점점 어려워 지게 되며, 국제 경쟁력에서도우위를 차지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이 시점에서 Hi-Fi Cone紙를 전문으로 생산할 수 있는 施設과 技術의 도입이 시급한 형편이다.

스피커生産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部品の 몇가지에 집중적인 투자와 기술개발이 지연되면 될수록, 國産産業은 물론 국제 경쟁력에 있어서도 뒤지게 된다는 사실을 국내 메이커가 모를리가 없다. 그러나 그런 사정을 알면서도 막대한 투자와 施設을 갖추지 못하는 이유는 그만큼 국내 스피커메이커가 감당하기에는 벅찬 사업이기 때문이다.

스피커産業은 경쟁력에 있어서 결코 비관적인 産業은 아니다.

세계市場 점유를 歐美나 日本에 상당히 빼앗기고는 있지만 언젠가는 따라잡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원가 절감이나 품질관리면에서 歐美나 日本보다 못하지 않다고 본다.

이렇게 볼때, 이 스피커産業에 관한 部品 및 재료선택 개발에 있어서 정책적인 차원의 뒷받침이 필히 있어야 할 것이라 본다.

## 1982年版 英文 綜合카탈로그 發刊

대상업체: 전자·전기 업체, 관련 업체 및 기타

기본체제: ○책 명: 1982 Korea Electronics Catalog

○판 형: 國배판(21×28cm), 반양장, 고급 아트지

○부수 및 면수: 5,000부, 400면

○발간일자: 1981년 9월 30일